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권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선  
 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1초살이 인생' 착두지 말고 놓고 사세요

사계절이 간다 하더라도 모두 초월해서 돌아가는 걸 본다면 그날이 그날이고  
 우리네 마음들도 항상 그대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 마음도 새록새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는다는 생각을 하고 새  
 로이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음은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조절되고 화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했을 때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한 거를 느끼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가야 하는지 그걸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자부처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있고 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일체제물이  
 한꺼번에 여러분의 근본, 주인공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한도량에 들었는 뜻입니다. 영은 만 명이 이 허공에 전  
 부 모여도 하나일 뿐이요. 일불(一佛)일 뿐이요.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쓰려면  
 만불(萬佛)도 될 수 있고 허공에 꼭꼭 채 할 수도 있죠.

와도 모르니까 말이예요. 주인이 없으니  
 까 그거를 대치하지 못해요. 주인이 있는  
 집이라야 너, 왜 들어왔어? 남의 집에,  
 그러구선 내집인데 주인이 없으니까 보  
 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들어왔다 나갔  
 다 마음대로 해도 그건 통제를 못하죠.  
 말로만 들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을 듣고 '아, 인간이라는 고등동물은  
 하지 못하는 게 없구나! 업이든 고(苦)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  
 하면 없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두  
 러워하지 말고 공부하는데 몰려서지 마  
 세요. 생각을 자꾸 나쁘게 몰아가면 그  
 바로 업보고 고가 되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 팔자는 왜 이래,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이러죠. 그런데 죄를 아무  
 리 지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일초에 한  
 발자국을 버렸을 때는 때론 사이도 없  
 다 이겁니다. 고정된 게 없이 한 발자국  
 떼어놓으면 없어지고 또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없어지니까 그것을 이물해서 고  
 라고 할 것도 없고, 갖다고 할 것도 없고  
 갖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발자국을 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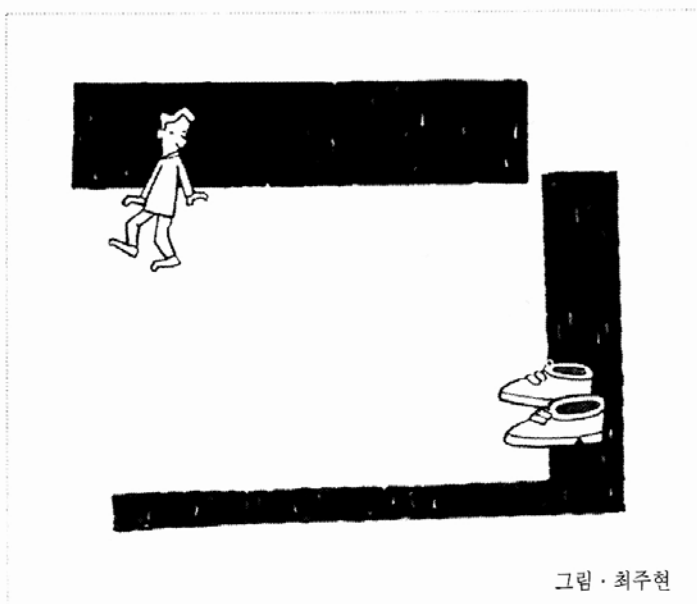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백** 지장 하나 사이에 놓고 이것을 걸  
 어치느냐 안 걸어치느냐에 따라  
 서 부처다. 중생이다 하죠. 그러  
 나 99% 부처될 가능성을 천연적으로 갖  
 추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들이 알아두  
 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가 없다고 하  
 는 뜻이예요.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안  
 되는 게 돌아오면 되는 게 돌아오면 그  
 걸, 양면에 다 놓으라는 뜻이죠. 보세요.  
 내가 항상 말을 하지만 걸어도 발자취  
 를 볼 때 이 자취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떼어놓으면 없어지고 떼어놓으면 없어지  
 니다. 앞으로 떼어놓는 거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고 뒤에 것은 이미 지나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없애고 그냥 여여하게 발을 떼어놓을 뿐  
 이란 얘깁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일초  
 살이 인지도 모르죠. 하루살이도 아니고  
 일초살이 말이예요. 항상 마음이 변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니까요. 고정됨이  
 없이 말이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처럼 화해서 행을 하시고 또 '어보'  
 하고 부르면 남편으로 화해서 행하시고  
 이렇게 할나할나 나투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일초살이' 라고 해도 되죠.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해서 일초살이로 산  
 다면, 삼천년 전 개교도 넘을 수 있고 삼  
 천년 후 미래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자재권을 갖추어 가  
 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런다면 물론 고송스러워서 그러겠지만

**발자취 떼어 놓으면 없어지듯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났기에 없으니  
 양면 놓고 여여하게 걸으세요**

한생각을 좋게 돌리지를 못하고서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버리  
 거든요.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그게 업  
 이고요. 그 마음이 말입니다. 내가 한 발  
 자국 떼어놓으면 한 발자국이 없어진 걸  
 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알지 않  
 거든요. 천 번을 걸었는지 만 번을 걸었  
 는지 그걸을 지루하게 붙들고 늘어지죠.  
 그리고 앞에 오지도 않은 걸 미리 생각  
 하고 잡아들려고 하구요. 그러니 내한테  
 빛이 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잃는 거  
 죠. 내면에 나의 주장자를 잡고 간다는  
 뜻은 집주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내가 내 주장자를 모르면 빈 집  
 과 같애요. 그래서 영계성이나 세균성이  
 니 업보성이니 인과성이니 유전성이니  
 하는 문제가 생기죠. 집이 비어서 누가

어렸을 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억눌러서 산다 하더라도 한  
 이 없이 하는 걸 알아야 진짜 힘이 없이  
 하는 도리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잘되는 것만 생각  
 하라 이것도 아니예요. 잘되는 거든 잘  
 안되는 거든 잘했든 잘못했든 양면을 다  
 내려 이겁니다. 자기가 공해서 없는데 간  
 게는 어땠으며 은 거는 어땠겠습니까?  
 공한 이치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몸 속  
 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생명,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누가 장이 아프다고 그랬  
 을 때 어떤 놈이 장을 아프게 했습니까?  
 또 위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어떤 놈이  
 위를 아프게 했습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한 도반들인데 누가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

머니 안에서만 살지 그 공기주머니를 벗  
 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몸안의  
 생명들도 몸 바깥으로 나오면 죽어요. 그  
 러나 그 의식들하고 나의 마음 모두가  
 하나로 통일하게 된다면 그대로 그 속의  
 의식들이 다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떤 어떤 거든 화해서 응신으로 나를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  
 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전을  
 보고 불법은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고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인  
 뜻을 아셔야 합니다. 한발짝 떼어놓으면  
 없어지는데 앞에 것은 어땠으며 뒤에 것  
 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발을 떼어놓  
 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자꾸 떼어놓는데  
 어떤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 내가 했다고  
 하니까? 몸뚱이 속에서 여럿이 더불어  
 같이 사는데 말입니다. 보는 것도 혼자  
 봤다고 말 못하죠. 이 생명들이 다 작용  
 을 해주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 오갈 것 없어**  
 한 군데서만 작용을 안해줘도 병이 나  
 죠. 공갈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여기에서  
 피를 걸러 주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하  
 예. 각자 소임 많은 대로 작용을 하죠. 수  
 분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채  
 워주고 배가 고프다면 밥을 달라고 해서  
 서로 이쪽 저쪽 심부름을 해줘서 건강하  
 게 다니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어 고정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 걱정이지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나  
 는 것도, 먹는 것도 하다 못해 자는 것까  
 지도 고정된 게 없이 움직여지고 산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사니까 이  
 거는 공했다든 거죠. 어떤 걸 먹었을 때 내  
 가 먹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  
 처하고 한 겁니다. 더불어 그냥 여여하게  
 걸림 없이 그냥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거와 같은 거예요. 생활이 전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초월해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공해서 그렇게  
 여여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그것만  
 딱 알아놓으면 좋겠는데 말이예요. 하하  
 하.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  
 대로 못쓰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쓰는  
 사이없이 쓰는 건데 말입니다. 얼마나 편  
 안하고 걸림없고 좋겠습니까? 능력이 있  
 으니까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능력이  
 없다면 아마 죽을까봐 겁날 겁니다. 이것  
 은 능력이예요. 지혜로운 능력!  
 이거 하나만 알면은 천차만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자기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스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해도 안됨  
 니다. 이러거든요. 진짜로 자기를, 자기

뿌리를 자기 짝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기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래서 너를 모르잖은 저 일체 만물을 다  
 보라. 뿌리없이 사는 거 봤냐고, 종자없  
 이 심어 먹는 거 봤냐고 그러합니다.  
**질문자:** 스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지  
 원 청년회 2부 대학생법회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스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주인공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욱 더 건강하십시오.  
 인생의 가족 인연은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이 가족이 아닌 원수처럼 싸우고, 미워하  
 고 고달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함께 괴롭게 살면서 이러한 인연을 녹여  
 야만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너  
 무도 고달프니까 헤어져 살면서도 서로의  
 인연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고정됨 없는 도리 알라**  
 스님: 그거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  
 기가 이력하는게 좋다. 저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대로 행하는  
 거지. 그리고 가족 인연이라면 그건 피치  
 못할 일들이지. 우리가 전자의 인연이 있  
 으니까 만난 인연들이거든. 그건 뭐냐하  
 면 인연이 있고 없고 간에 차원대로 만  
 나는 인연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  
 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  
 그리고 무쇠 차원이라면 무쇠들끼리 모  
 여서 살게 마련이거든. 한가족이 다 그  
 래. 우연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각자, 그 가족에 대해서 상대  
 방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각각 자기  
 탓을 해야지. 자기가 그 자리에 갈은 차  
 원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잘  
 했든 못했든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  
 다면 무슨 상대가 있어? 그러기 때문  
 에 그 마음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서  
 관하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없어질 수 있  
 다. 회개할 수 있게끔 된다. 그렇게  
 해서 녹이는 거지. 끊는 게 아니. 끊는  
 것은 다시 이어질 수 있지만 녹이는 것  
 은 들이 아니게 녹이는 까닭에 아주 해  
 달같이 무너지는 거지.  
 어떠한 거든지 고집에서 잘못된다 잘  
 된다 이러지 말고 평등공법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저 오는  
 대로 집어넣어. 그 소리를 옛날에는 선지  
 식들이 '부처가 오면 그냥 죽어라' 이  
 랐거든? 그 말이 무지막이 좋으니까  
 그냥 둘 아니게 집어먹는다는 뜻이야.  
**질문자:** 이 공부를 하게 해준 내 주인  
 공과 길을 밝혀주신 큰스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나와 세상이 더불어 좋은 것  
 이 불발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수가 단결된 힘에 의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자랑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禪

## 선방안내

365일 24시간 선방 개방 중입니다.  
 ■ 매일 철야 가능 ■  
 강남지역 불자는 강남선방을 이용바랍니다.  
 \*약도 : 본회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2층  
 강남 선방, 봉은사 버스정류장 5층 건물 3층  
 ■문의 : (02)732-5960

대한불교 조계종 **修禪會**

선 방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강남선방 : 강남구 삼성동 77-23 301호  
 양평선방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 3리  
 캐나다修禪會禪房 460 ENGIN MILLS RD. E. #10  
 Richmond Hill, ONT. L 4C 1G2 CANADA

참선교육 51기는 9월 5일 개강  
 — 참선교육 교세 필요한 분 연락바람! —

## 이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인진쑥(高養山)은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  
 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이 속에서도 피리와 즐기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상복지원  
 임정선님은 이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에서 자라  
 는 야생(참)인진쑥(高養山)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  
 라에서 6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  
 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장전 제13호를 받  
 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능한 건강식품  
 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판매드리오니 건강할 몸과 마음  
 으로 다량계생물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릉주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압과 분침법 예민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전식·홍  
 약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약,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쇠퇴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면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들 좋은 곳에서 향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강주 문 전 080-988-4774 강주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

##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인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향토마을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왕토마을에서는

- ① 왕토 주택 토굴시공
- ②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③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향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